

##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Economic Hardship, Child Rearing Attitudes  
and Adjustment Behaviors of Adolescents

박민선\*

Park, Min Sun

박성연\*\*

Park, Seong Yeon

### ABSTRACT

The present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 among economic hardship,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was carried out with 528 middle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Kyung-gi province. Questionnaires for mothers were on economic stress, and children's questionnaires were o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as well as their own adjustment behaviors, such as aggression, depression, and negative self-concept. Adolescent boys perceived p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more rejecting and inconsistent when the family experienced income loss. Paternal nurtur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were also reduced under poor paternal working conditions. Change in family life style due to economic hardship resulted in higher adolescent depress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도 후반부터 한국사회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경제한파는 사회전체를 얼어붙게 했고, 필연적으로 국가, 사회의 재구조화와 가족내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경제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환율과 금리의 인상, 주가 폭락,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와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제로 1998년 9월

현재 실직자의 수는 157만 2천명으로 작년보다 111만 3천명이 증가되었다(통계청, 1998). 뿐만 아니라, 1998년 1월부터 9월까지 8.1%의 물가상승(통계청, 1998)과 각종 상여금의 삭감 등으로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중 상층보다는 중 하류층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황에 따른 가정의 실직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교수

이나 수입의 감소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가족원들에게 개인의 욕구 억제 및 소비행위의 감소, 저축감소나 재산 매각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그 결과, 가족원 개개인이나 가족원들간에 좌절과 분노, 사기저하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가족관계의 변화(Elder, 1974)와 결혼의 해체(Bakke, 1940), 아동학대 및 방임(Gelles, 1980)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증거는 대공황 시기(Bakke, 1940; Elder, 1974)나 1980년대의 경제위기(Dooley & Catalano, 1980)와 같은 미국사회의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가족구성원의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상황을 악화시키고, 역기능적인 가족관계와 바람직하지 않은 아동 양육을 통해 아동의 행동이나 사회-정서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즉, 급격한 수입의 감소로 인한 가족원의 불안정한 감정상태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 대해 전보다 더 통제적,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부모의 긴장과 불안은 어린 자녀들에게 급속하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키게 된다(최명선, 1998; Elder, 1974; McLoyd, Jayaratne, Cebello, & Borquez, 1994).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가족원들이 받게되는 부정적인 영향정도는 가족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들에게는 특히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lder, Liker와 Cross(1984)에 의하면, 아버지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앞날에 대한 불안, 가족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감 및 외로움을 경험

할 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수입의 감소 자체를 경기불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무능함과 불성실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인식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가족원보다 더 큰 정서적 불안과 긴장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아내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자녀들에게 비밀관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사회에서는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실제로, 과거 대공황시기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들은 집에서 가사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버지들의 경우 더 심각하였다(Elder et al., 1984). 그러나, 1980년대 초의 경제 위기를 다룬 최근의 연구에서는 많은 어머니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스트레스를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어(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Patterson, 1988) 이 같은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간 문제는 특히 신체적, 심리적으로 발달적 변화를 크게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아동들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청소년기는 스트레스 시기 또는 독립으로의 전이의 시기로, 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Montemayor, 1982), 적응상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der, 1974; Flanagan, 1988).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청소년의 적응상 문제는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자아개념 등 내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Coopersmith, 1967; Werner & Smith, 1982). 또한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Lempers et al., 1989)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즉, 많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낳게 된다(Elder, 1974; Flanagan, 1988). 그러나,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문제가 어떤 것들이며, 그 경로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는 대상아동의 연령이나 성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어, 같은 청소년기 아동이라고 해도 아동의 성이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의 적응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1930년대 대공황 시기(Elder, 1979; Elder et al.,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와 1980년대의 농업 경제의 위기(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그리고 흑인 빈곤층(Gibbs, 1986; Myers & King, 1983)에 관련된 미국의 연구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인간의 행동은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해도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회적 맥락이나 가치관이 다른 서구의 연구결과를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해석,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적이고(한남제, 1989), 가정의 생계를 주로 아버지가 담당하며, 어머니의 취업은 가계의 재정을 돕는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

에 아버지의 실직이나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서구의 경우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충격과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에 따라 양육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의 IMF 관리체제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에서 각 가정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또한 청소년의 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남·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가정의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는 아동의 성(性)에 따라 다른가?
- 2)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여 아동의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 3)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여 아동의 우울감은 차이가 있는가?
- 4)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여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은 차이가 있는가?
- 5)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아동의 적응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또한 그 매개효과는 아동의 성(性)에 따라 다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타격은 중

하류층의 경우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 하류층에 속한다고 판단된 수도권 K지역에서 연구대상 가족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양친이 모두 있는 총 528 가정의 중학교 1·2·3학년 남·녀 아동(남아: 260명, 여아: 268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교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초기 청소년기가 아동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와 전이의 시기로 이 기간동안 가족 관계의 안정성은 아동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행동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Montemayor, 198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자녀간 관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아버지: 47.9%, 어머니: 51.5%)을 차지하였고, 그 이하의 교육수준도 상당수(아버지: 34%, 어머니: 41%)인 반면,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은 부모 각각 18.1%와 7.5% 뿐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28.8%로 가장 많고, 피고용 서비스직(12.1%), 공무원과 회사원(10%)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5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50%는 부업 또는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취업의 경우, 대부분이 자영업(17.4%)이나 피고용 서비스직(12.3%)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전체 평균소득은 연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인 67%가 50만원 ~ 150만원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1997년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이 2,287,335원인 것과 비교해(통계청, 1997), 본 연구대상은 중 하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용과 어머니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용 질문지로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행동을, 어머니용 질문지로는 어머니가 느끼는 가

족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질문지의 각 문항들에 대해서는 IMF 경제불황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1)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관한 측정

가정내 경제적 상황 변화는 수입의 변화,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정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가정내 수입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한 문항으로 'IMF 이후' 가정내 수입에 대해 「그대로이다」, 「10%정도 감소하였다」, 「20%정도 감소하였다」, 「30%정도 혹은 그 이상 감소하였다」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버지 직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우선 'IMF 이후' 아버지 직업의 변화 여부를 묻고, 만약 직업의 변화가 있었다면,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다」, 「전보다 더 못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 「실직했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의 변화에 관한 척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Lempers와 동료들(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naire의 9문항과 본 연구자가 구성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IMF 이전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변화가 많은 것을 뜻하게 된다.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된 생활변화 척도의 신뢰도는 .84였다. 참고로 본 연구대상 가족의 경제적 상황변화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Lempers와 동료들(1989)의

<표 1> 조사대상자 가정의 IMF 이후 경제적 상황변화

변 인	문 항	빈 도(%)
IMF 이후 가정의 수입 변화	그대로이다.	59(11.2)
	10% 정도 감소하였다.	82(15.6)
	20% 정도 감소하였다.	124(23.6)
	30% 정도 혹은 그 이상 감소하였다.	261(49.6)
IMF 이후 아버지 직업의 변화	직업에 변화가 없었다.	344(68.0)
	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겼다.	88(17.4)
	실직했다.	74(14.6)

변 인	문 항	평 균
IMF 이후 가정내 생활의 변화	문화생활을 위한 소비가 줄었다.	3.10
	가정에서 꼭 중요하게 구입해야 할 것도 미뤘다.	2.94
	의복의 구입을 다음으로 미뤘다.	3.08
	돈을 절약하기 위해 교통편을 바꿨다.	2.50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되도록 줄였다.	3.04
	돈을 절약하기 위해 외식을 줄였다.	3.27
	재산을 매각했다.	1.92
	가정의 수입을 위해 부업을 시작했거나, 계획한다.	2.47
	아이를 위한 지출을 줄였다.	2.79
	빚이 늘었다.	2.25
	적금 해약이 늘었거나 저축이 줄었다.	2.92
사교적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2.92	
전체평균 : 2.78		

척도를 토대로 부·모의 비일관적인 태도와 거부 또는 애정적인 태도에 관한 29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중학생과 어머니 52쌍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결과, 우리문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다른 문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18 문항을 삭제하고, 본 연구자가 3문항을 추가하여 본 조사에서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2> 가정의 수입변화와 아동의 성에 따른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 일관적 양육태도

변량원	SS	DF	MS	F
수입의 변화	1.62E-02	1	1.62E-02	0.05
아동의 성(性)	1.56	1	1.56	4.97 *
성×수입의 변화	2.13	1	2.13	6.79 **

\* p <.05    \*\* p <.01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각각에 대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 모두 Lempers와 동료들의 애정-거부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 중 거부적 태도 문항들은 비일관적 태도문항과 결합되어 한 요인을 이루고, 애정적 양육태도 문항만이 남아 또 한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에 대해 각각 권위주의적·비 일관적 양육태도(8문항)와 애정적 양육태도(6문항)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가되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애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계수로 본 권위주의적·비 일관적 태도 척도와 애정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경우 각각 .85, .77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각각 .84, .79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적응행동 척도

#### (1)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황정규(1965)의 욕구진단검사 중 공격욕구를 측정하는 24개 문항 중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제거하고 11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4점으로 된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IMF 이전과 비교해서 공격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공격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1이다.

#### (2) 우울감

아동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안귀여루(198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본래의 20개의 문항 중 아동의 우울감을 측정하기에 적합치 않거나 중복되는 3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감의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그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값은 .87이다.

#### (3) 부정적 자아개념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성격진단검사」(송인섭, 1990) 중 일부분인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다. 「자아개념 검사」는 총 65개 문항으로 일반, 학업, 사회, 정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내용인 일반요인 16문항만을 선정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그렇다(1점)', '아니다(2점)' 중 하나에 반응하도록 된 2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자아개념의 Cronbach's  $\alpha$  값은 .81이다.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될 척도의 구성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1·2·3학년의 어머니와 아동 52쌍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8월 27일에 K지역에 있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용 질문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아동에게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어머니용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완성하게 한 후 돌려 받았다. 배부된 700부의 질문지 중에서 어머니용과 아동용 쌍이 모두

회수된 것은 전체의 75%인 552부였고, 그 중에서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총 528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아동의 성(性)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적응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원변량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검증하였으며, 경제적 상황변화, 아동의 적응행동,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도

는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문항에 따라 질문지에 나타난 경제상황 변화의 응답범주를 합쳤다. 즉, 가정의 수입변화의 경우는 IMF 이후 수입이 그대로이거나 약간 감소한 집단과 20-30%이상 감소한 집단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아버지 직업은 변화가 없는 집단, 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긴 집단 그리고 실직한 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IMF 이후 가정내 생활의 변화는 그 변화 정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M=2.78)보다 변화가 적은 집단과 변화가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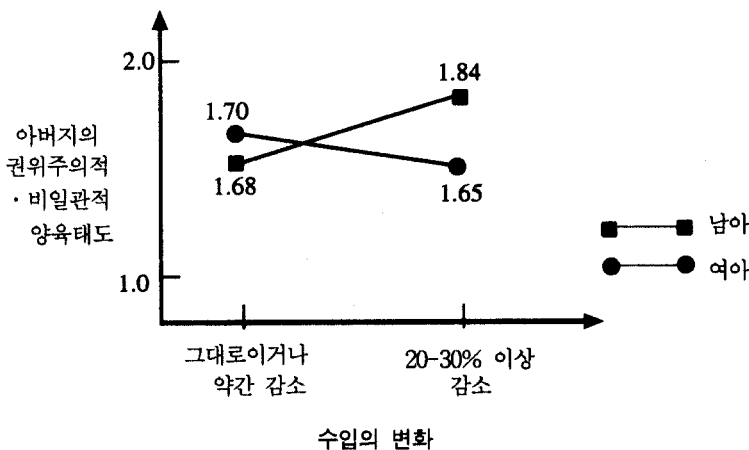
### III. 연구결과

#### 1.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 1)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태도

IMF 경제불황 이후 발생한 가정내 경제적 상

황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가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수입의 변화,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 등 모든 생활변화 지표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1> 아동의 성에 따른 수입의 변화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

&lt;표 3&gt; 아버지 직업의 변화와 아동의 성에 따른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변량원	SS	DF	MS	F
직업의 변화	3.57	2	1.79	5.90 **
아동의 성(性)	0.52	1	0.52	1.71
성×직업의 변화	0.33	2	0.17	0.55

\*\* p &lt;.01

&lt;표 4&gt; 생활의 변화와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

변량원	SS	DF	MS	F
생활의 변화	1.10	1	1.10	4.10 *
아동의 성(性)	1.61	1	1.61	6.01 *
성×생활의 변화	0.12	1	0.12	0.44

\* p &lt;.05

모든 지표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주 효과(수입의 변화  $F=4.97$ ,  $df=1$ ,  $p<.05$ ; 직업의 변화  $F=6.94$ ,  $df=1$ ,  $p<.01$ ; 생활의 변화  $F=5.32$ ,  $df=1$ ,  $p<.05$ )가 나타났으며, 수입변화에서만 아동의 성과 경제적 변화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 $F=6.79$ ,  $df=1$ ,  $p<.01$ )가 나타났다(<표 2>). 즉, 전반적으로 볼 때는 남아( $M=1.80$ )가 여아( $M=1.69$ )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으로 지각했지만, 이러한 성차는 수입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 수입의 변화가 큰 가정의 남아( $M=1.84$ )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남아( $M=1.68$ )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입의 변화가 큰 경우( $M=1.65$ )에 수입의 변화가 적은 경우( $M=1.70$ )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덜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으로 지각하였다(<그림 1>).

한편,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가정내 수입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 직업의 변화에 따른 주효과( $F=5.90$ ,  $df=2$ ,  $p<.01$ )가 나타났다(<표 3>).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의

직장에 변화가 없는 집단, 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긴 집단, 실직한 집단의 세 집단 중 특히, 아버지의 직업에 변화가 없는 가정의 아동( $M=2.77$ )은 실직한 가정의 아동( $M=2.55$ )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유의하게 더 애정적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성과 경제적 변화의 상호작용효과는 그 어떤 지표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 2)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태도나 애정적 양육태도는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나 경제적 변화 지표와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 2.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적응행동

### 1)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에서는 가정내 수입의 변화나 아



&lt;표 5&gt;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와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변량원	SS	DF	MS	F
수입의 변화	1.89	1	1.89	7.98 **
아동의 성	0.30	1	0.30	1.28
성×수입의 변화	0.12	1	0.12	0.49
직업의 변화	2.40	2	1.20	5.00 **
아동의 성	0.22	1	0.22	0.93
성×직업의 변화	0.22	2	0.11	0.46
생활의 변화	1.84	1	1.84	7.91 **
아동의 성	0.30	1	0.30	1.27
성×생활의 변화	1.82	1	1.82	7.81 **

\*\*p &lt;.01

버지 직업의 변화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생활의 변화( $F=4.10$ ,  $df=1$ ,  $p<.05$ )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표 4>). 또한,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 $F=6.01$ ,  $df=1$ ,  $p<.05$ )도 나타났지만, 생활 변화와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IMF 이후 생활의 변화가 큰 가정의 아동( $M=2.12$ )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 $M=2.03$ )보다 더욱 심한 공격성을 나타냈으며, 예상과 달리 남아( $M=2.01$ )보다 여아( $M=2.13$ )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 2)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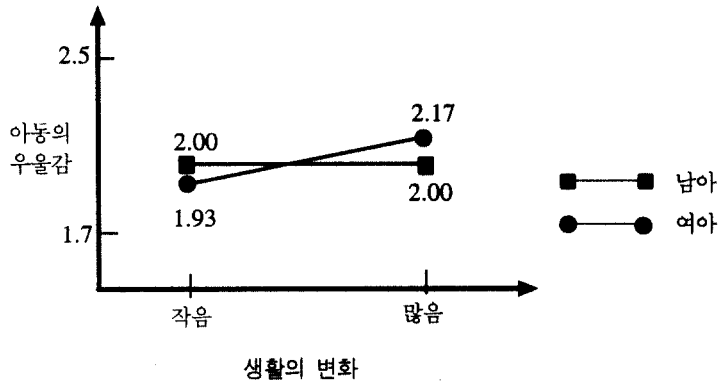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우울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우울감은 가정의 수입변화( $F=7.98$ ,  $df=1$ ,  $p<.01$ )와 아버지 직업의 변화( $F=5.00$ ,  $df=2$ ,  $p<.01$ ) 그리고 생활의 변화( $F=7.91$ ,  $df=1$ ,  $p<.01$ )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냈다(<표 5>). 즉, 아동들은 IMF 이후 가정의 수입이 그대로이거나 약간 감소했을 때( $M=1.93$ ) 보다 20-30%이상 감소했을 때( $M=2.06$ ) 더욱 큰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IMF 이후 아버지가 실직한 가정의 아동( $M=2.19$ )이 아버지가 이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겨거나( $M=2.00$ ) 직업의 변화가 없는 가정의 아동보다( $M=1.96$ ) 더욱 우울감을 느꼈으며, 경제불황이후 생활의 변화가 커서 경제활동의 위축을 많이 경험한 집단의 아동( $M=2.08$ )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아동( $M=1.97$ )보다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

한편, 우울감에 있어 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상황 변화 지표 중 생활의 변화만이 아동의 성과 상호작용을 하여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다( $F=7.81$ ,  $df=1$ ,  $p<.01$ ).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생활의 변화가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여아의 경우에는 생활의 변화가 클수록 우울감을 훨씬 더 크게 느꼈지만, 남아는 생활의 변화에 따라 우울감에 별 차이가 없었다.

## 3) 가정의 수입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및 생활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자



<그림 2> 아동의 성에 따른 생활의 변호와 아동의 우울감

<표 6> 아버지 직업, 생활의 변화의 변화와 아동의 성에 따른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변량원	SS	DF	MS	F
직업의 변화	0.42	2	0.21	3.61 *
아동의 성	0.41	1	0.41	6.95 **
성×수입의 변화	0.11	2	5.61E-02	0.96
생활의 변화	0.77	1	0.77	13.28 ***
아동의 성	0.51	1	0.51	8.90 **
성×직업의 변화	0.12	1	0.12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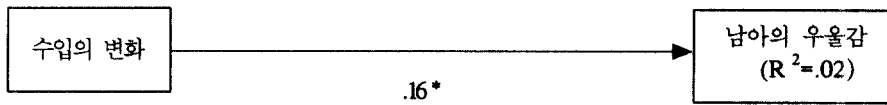
\* p <.05    \*\* p <.01    \*\*\* p <.001

아개념은 수입의 변화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아버지 직업의 변화(F=3.61, df=2, p<.05)와 생활의 변화(F=13.28, df=1, p<.001)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냈다(<표 6>). 또한,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직업의 변화 F=6.95, df=1, p<.01; 생활의 변화 F=8.90, df=1, p<.01)는 나타났으나 그 어느 지표의 경우에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특히 아버지가 IMF 이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긴 가정의 아동(M=1.52)이 직업의 변화가 없는 가정의 아동(M=1.45)보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생활의 변화가 큰 가정의 아동이(M=1.51) 생활의 변화가 적은 가정의 아동(M=1.43)보다 더욱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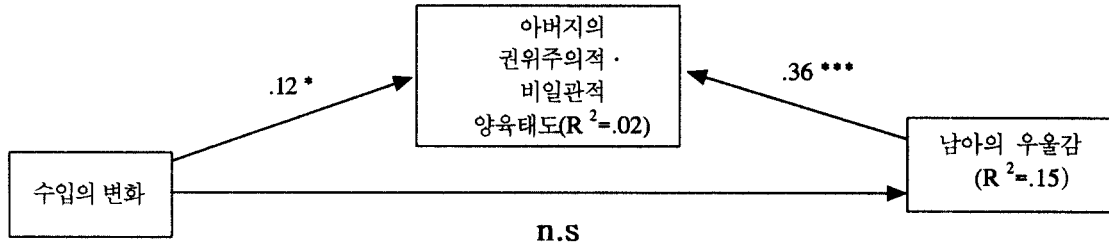
냈고, 여아(M=1.50)는 남아(M=1.44)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 3. 매개효과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선행연구들(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Elder, 1979)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아동의 적응행동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이것은 아동의 성(性)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의 적응행동 각 각에 대해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부·모 양육태도 영향력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적 상황과 아동의 적응행동, 양육태도 각각의 변



<그림 3> 남아의 우울감에 대한 수입변화의 예언력



<그림 4> 남아의 우울감에 대한 수입의 변화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의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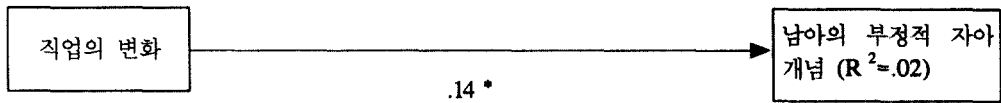
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성별로 실시한 후, 경제적 상황지표와 아동의 적응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우울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Baron과 Kenny(1986)의 모델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첫 단계에서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아동의 적응행동간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의 적응행동(종속변인)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변화(독립변인)의 설명력이 매개변인(부·모의 양육태도)이 통제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서 수입의 변화와 직업의 변화정도를 등간척도화하였고, 생활의 변화는 본래 문항의 등간척도 점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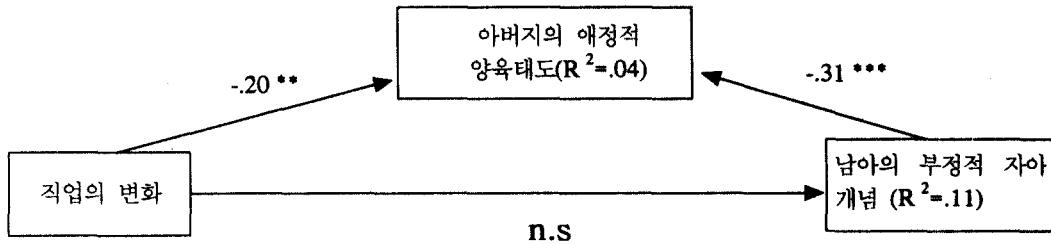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수입의 변화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에서만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나 어머니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태도와 애정적 양육태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IMF 이후 가정의 수입변화는 남아의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beta=.16, p<.05$ ) 수입의 변화가 클수록 남아의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의 분석결과(<그림 4>)에 의하면, 가정내 수입의 변화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beta=.12, p<.05$ ),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남아의 우울감( $\beta=.36, p<.01$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가 통제되었을 때, 가정의 수입변화는 남아의 우울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수입의 변화와 남아의 우울감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직업의 변화는 아버지의 애정적인 태도를 매개로 남아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즉, <그림 5>에서 보듯이 남아는 아버지의 직업상태가 나빠질수록, 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으나( $\beta=.14, p<.05$ ),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통제되었을 때는(<그림 6> 참조), 아버지의 직업변화가 남아



<그림 5> 남아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아버지 직업변화의 예언력



<그림 6> 남아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직업의 변화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의 경로분석

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버지 직업의 변화와 남아의 부정적 자아개념간의 사이에서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아버지 직업상태가 나빠지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줄어들고 ( $\beta = -.20, p < .01$ ), 이러한 아버지의 비애정적 양육태도는 남아의 부

정적 자아개념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 $\beta = -.31, p < .001$ ).

한편, 여아의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 아동의 우울감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가정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적응간의 관계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IMF 경제불황 이후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변화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부·

### 모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 일관적 양육태도는 수입의 변화와 아버지 직업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의 수입변화는 아동의 성과 상호작용하여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 일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IMF 이후 수입의 감소가 큰 가정의 경우, 특히 남아가 여아에 비해 아버

지의 양육태도를 더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으로 지각했다. 이처럼 수입의 감소가 큰 가정의 남아 여아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한 결과는 대공황시기의 가족관계에 대해 연구했던 Elder(1979)의 초기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남아와 여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다르게 지각하는 이유는 첫째, 아버지가 남아와 여아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때문이거나 둘째, 아버지가 남아와 여아 모두를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인 방식으로 대하지만, 어머니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해 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양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Elder(1979)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욱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서 여아와 아버지간의 부정적 관계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지만, 남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악화되는 것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달라진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Elder(1979)의 주장과는 달리, 어머니 양육태도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들이 실제로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양육태도 즉, 남아에게 더 권위주의적·비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아버지 직업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IMF 이후 아버지의 직업상태에 변화가 없는 가정의 아동이 아버지가 실직한 가정의 아동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애정적으로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불안정한 직업과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거부적, 강압적

양육태도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Whitbeck과 Simon 그리고 Conger(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우리 나라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가정내 수입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의 실직은 주 소득원의 상실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버지들에게 큰 부담과 죄책감을 가져옴과 동시에, 일을 통해서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았던 아버지들에게 실직이라는 것은 존재자체의 상실이라고 할만큼의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직은 아버지들의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이나 근심의 증가를 가져오며(Buss & Redburn, 1983), 자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잃게 하기 때문에 거부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IMF 이후 발생한 가정내 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대공황시기의 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강압적이고, 거부적이며 비애정적인 방식으로 달라졌으나, 어머니들에게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연구(Elder et al., 1984)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취업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Conger et al., 1992; Flanagan & Eccles, 1993; Romeron, Castro, & Cercantes, 1988)의 결과들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아직도 가정내 수입의 대부분을 아버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취업했다고 해도 거의 동등한 책임을 갖는 미국

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취업한 어머니들의 수입은 가족원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가계 재정을 돕는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이 커질수록 그것으로 인한 좌절과 부담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아버지들의 권위의 상실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보다 더욱 처벌적이고, 거부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들의 양육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 2)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적응행동

아동의 공격성은 가정의 수입변화 및 아버지의 직업변화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IMF 이후 발생한 가정내 생활의 변화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IMF 이후 소비와 저축 등에 관련된 경제 생활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위축된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남아 여아 관계없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이것은 Patterson 등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Kellam, Ensminger, & Turner, 1977)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로 아버지의 직업변화나 수입변화 자체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일상생활내 경제적 활동의 변화는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이것이 외현적 행동으로 표출되어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동의 우울은 가정의 수입변화와 아버지 직업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즉, 경제불황이후 수입이 20-30%이상 감소된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심한 우울감을 경험했고, 아버지가 실직한 가

정의 아동이 아버지가 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겼거나 직업에 변화가 없는 경우보다 더 우울감을 느꼈다. 또한, IMF 이후 발생한 생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쳐, 경제 생활에 있어 큰 변화와 위축을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해 더 심한 우울감을 나타냈다. 더욱이, 생활의 변화가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경우 생활의 변화가 클수록 심한 우울감을 나타냈으나, 남아는 생활의 변화가 큰 집단과 작은 집단간에 우울감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기 여아는 남아들에 비해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거나 사회활동의 위축(Elder, 1974)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낮은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남아와는 다르게 이러한 스트레스가 내적 부적응행동인 우울감으로 표출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은 수입의 변화에 의한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 직업의 변화나 생활의 변화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즉, IMF 이후 아버지가 전보다 못한 직장으로 옮긴 가정의 아동이 아버지 직업에 변화가 없는 가정의 아동에 비해 자신의 자아개념을 부정적으로 지각했고, 생활의 변화가 많은 가정의 아동이 경제불황 이후 생활의 변화를 적게 경험한 아동보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은 또래집단에 의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손쉽게 구입할 수 없게 되고, 또래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적응간의 관계

경제적 변화 즉 생활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격성과는 달리 우울이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중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경제적 상황과 아동의 적응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는데, 수입의 변화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남아의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 직업의 변화도 아버지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통해 남아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비일관적 태도를 증가시켜 아동의 우울과 외로움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허승연(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외에 Patterson등도(Patterson et al., 1988; Elder et al., 1984; Conger, McCarty, Yang, Lahey, & Kropp, 1984; Coopersmith, 1967) 부모의 양육태도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우울이나 불안감, 짜증 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상태는 다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변화시켜서 아동의 우울감과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경제적 상황과 아동의 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적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IMF 이후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이 어머니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에, 아버지에게는 심리적 변화와 양육태도의 변화를 유발시켰다는 <연구문제1>의 결과와 관계가 있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통해서 아동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같은 정도의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 있더라도 가족간의 상호작용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아동의 적응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性)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에게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통한 경제적 어려움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이 나타났으나, 여아는 경제적 어려움이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Elder와 동료들(1985)의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여아 보다는 남아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정내에서 부모의 집중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는 남아는 특히 자신의 역할 모델이 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이것이 경제적 어려움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MF 이후 가정내 수입의 변화, 아버지 직업의 변화 그리고 생활의 변화를 포함한 가정내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부·모 중에서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아버지는 자녀를 권위주의적·비 일관적이며 애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아의 적응행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만을 받았던 반면에, 남아의 적응행동은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상황의 간접적인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한 영향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주로 중 하류층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며, 연구설계에서 경제불황 이후에 달라진 양육태도나 아동의 적응행동을 질문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경제불황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의 내적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이전의 가족관계나 가족의 적 요인 등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불황과 가족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

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구의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외국의 최근 연구결과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성연(1998). 경제불황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및 아동의 적응행동. 『IMF 관리체제에서의 아동·청소년 생활변화와 적응』. 199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 송인섭(1990). 성격진단검사,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적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명선(1998). 경제위기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에 구조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1997/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남제(1989). 현대 한국 가족 연구, 서울: 일지사.
- 허승연(1998). 경제위기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가족응집성 변화가 아동의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규(1965). 적성검사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ke, E(1940). *Citizens without work*.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uss, T., & Redlburn, F. S(1983). *Mass unemployment: Plant closings community mental health*. Beverly Hills, CA: Sage.
- Conger, R., McCarty, J., Yang, R., Lahey, B., & Kropp, J(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 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on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2234-2247.
- Conger, R., Conger, K., Elder, G., Lorenz, F., Simons, R., & Whitbeck,(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54.
- Conger, R., GE, X., Elder, G., Lorenz, F., & Simons, R(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sikszentmihalyi, M., Larson, R.(1984). Being adolescent: Conflict and growth in the teenage years. New York: Basic.
- Dooley, D., & Catalano, R.(1980). Economic change as a cause of behavioral disorder. *Psychological Bulletin*, 87, 358-390.
- Elder, G.(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der, G.(1979). Historical change in life patterns and personality. In P. Baltes & O. Brim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 pp. 117-159). New York: Academic Press.
- Elder, G., Liker, J., & Cross, C.(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In P.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6, pp. 109-158). Orlando, FL: Academic Press.
- Elder, G., Nguyen, T. V., & Caspi, A.(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361-375.
- Flanagan, C.(1988). The effects of a changing economy o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s academic and vocational aspi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 Flanagan, C., & Eccles, J.(1993). Changes in parents' work status and adolescents'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4, 246-257.
- Gelles, R.(1980).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43-155.
- Gibbs, J.(1986). Assessment of depression in urban adolescent females: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American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 50-56.
- Kellam, S., Ensminger, M., & Turner, R.(1977). Family Structure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 1012-1022.
-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artin, B(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Loyd, V., Jayaratne, T., Cebello, R., & Borquez, J(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yers, H., & King, L(1983). Mental health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the black American child. In G. Powell, J. Yamamoto, A. Romero, & A. Morales (Eds.),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minority group children* (pp. 275-306). New York: Brunner/Mazel.
- Patterson, G(1988).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35-26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DeBaryshe, B.,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Romero, G., Castro, F., & Cervantes, R.(1988). Latinas without work: Family, occupational, and economic stress following unemploy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281-297.

Werner, E., & Smith, R.(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Whitbeck, L., Simons, R., Conger, R., Lorenz, F., Huck, S., & Elder, G.(1991).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 353-363.